

# "지금 버는 거? 죽을 때 써야지"

[제주잠녀] <3부>'잠녀를 만나다' <149>내도 바다 김옥자 할머니

등록 : 2010년 01월 06일 (수) 10:20:00  
최종수정 : 2010년 01월 06일 (수) 10:20:00

고 미 기자 ✉ popmee@hanmail.net



▲ 내도 바당

**아버지 반대에도 12살부터 물질...오랜 작업 후유증으로 고생  
팔순에도 바다 작업은 계속, "준 게 없는데 어찌 받으면서 사나"**

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잠녀인 '어머니'는 손을 쉴 수 없었다. 억지로 몸을 추슬러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이내 코피가 터지고 눈앞이 어른거린다. 그렇다고 그만 둘 수는 없다. 귀에 감기는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고 물건을 찾아 물속을 헤집는다. "다들 더하면 더했지..." 노잠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세월 속으로 잠겨들었다.



## # 살기 위해 선택한 '물질'

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는 다가섬을 허락하지 않았다. 바닷가 근처 김옥자 할머니(80) 댁을 찾아가는 길 역시 쉽지는 않았다. 취재진의 방문이 놀라웠는지 잠깐 상황을 살피던 김 할머니는 몇 번의 만류에도 끝내 아랫목을 내주셨다.

한때 70명이 넘었던 내도 잠녀는 이제 김 할머니를 포함해 4명이 전부다. 양식장 해경이니 하는 말은 없어진지 오래다. 그름에서 사흘까지 잠깐 작업을 쉬고 날만 좋으면 서바당 개울내·연대알이며 동바당 소마니여 등에서 곶물질을 한다.

칠순이 넘긴지 한 참된 연세에 아직도 물질을 한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"물때가 좋아 멀리 나가면 아직도 소라가 굵은 편"이란다. 거기에 "나이가 많아 바깥까지는 못나가지만 여기 내도 바다에서는 작업을 한다"고 무문현답이다.

### ▲ 김옥자 할머니

'깊은 바다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한 탓에 잘 안 들린다'던 김 할머니지만 물질 얘기에는 귀가 번쩍

뜨이는 눈치다.

'뭐 이런 걸 다 물어보냐'며 손사래를 치다가도 공수(새)기(돌고래) 얘기며, 자식 자랑에는 시간은 줄 모른다.

"고래 잠녀(대상군)도 공수(새)기가 나타나면 몸을 피하기 바쁠 정도"라고 운을 댄 김 할머니는 "왓찌 소리만 들리면 정신없이 물으로 헤엄쳐 갔다"며 '(물)알로 가라, (물)알로 가라' 소리쳤던 일을 기억해 냈다.

서로 겁이나 잠녀들은 몸이 굵어 헤엄을 못치고, 공수(새)기들은 잠녀들을 메워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. 김 할머니는 "한번 공수기를 만나고 나면 한참을 무서워서 먼 바다에는 가지 못했다"고 회상했다.

김 할머니는 12살부터 놀이처럼 물질을 배웠다. 처음 미역을 조물어 집에 가지고 간 날 김 할머니의 아버지는 보는 앞에서 테왁을 부술 정도로 심하게 반대했다. 19살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네 형제를 키우기 위해 물질을 그만둘 수 없었다.

김 할머니는 "내가 번 돈으로는 아이들 용돈이나 줘야지 했는데 물질을 안했으면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켰겠냐"며 "지금이야 어려우면 나라에서 도와라도 주지 그때는 누구 하나 살피주는 사람이 없었다"고 말했다.



▲ 아기를 낳고 바로 물질을 나서야했던 어머니 잠녀들이 작업 중 아기 젖을 먹이는 것은 흔히 볼수 있던 풍경이다. 제주해녀박물관 소장

## # 어머니의 이름으로

"눈이 욕심이주"

김 할머니가 불쑥 말을 던진다. 이제는 좀 쉼만한데 바다에 나가는 어머니를 말리다 지친 자식들은 이제 깊은 바다에 가는 일만 말린다.

"젖을 때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사는 거고, 지금도 어디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"는 고집을 누구도 쉽게 꺾지 못했다.

그래도 김 할머니의 태완은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깊은 바다로 간다. "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맘처럼 되냐"며 쓴웃음을 짓던 김 할머니는 "죽으면 쓰려고 계속 물질을 한다"고 말했다.

자식들이 건네는 용돈(가셋돈)은 일절 받아본 적이 없다. 가끔씩 얼굴을 보는 손자녀들의 손에 자신이 번 돈을 슬쩍 쥐어주는 재미도 쏠쏠하다.

김 할머니는 "어머님이 고생한 거야 헛한 거고, 공부들 하고 자리를 잡느라 자기들이 더 고생을 했다"며 "그런 아이들한테 죽어서까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다"고 했다.

누군가는 고령에도 잠녀들이 물에 드는 것을 '돈' 때문이라고 했다. 사실이다. 그렇지만 제 몸이 편하 하고 하는 일은 아니다. "아직 몸이 움직이는데 무슨 도움을 받겠느냐"며 준 것이 없으니 받지도 않겠다"는 노잠녀의 말이 좀처럼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. ▲특별취재반=김대생 교육체육문화부장·고미 편집부 차장·해녀박물관